

박진, 개발·상권 숙원 해결 vs 김영호, 교통 등 지역현안 살피

〈興〉

〈野〉

22대 총선 격전지

서대문을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등 총 7개 동으로 구성된 서울 서대문구는 동쪽으로는 종로, 서쪽으로는 마포, 북쪽과 남쪽으로는 은평과 서대문갑 지역에 맞닿아 있다. 또 옆 동네 서대문갑에 비해 주거지가 많은 편이고, 대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심이 쏠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더불어민주당 등 보수, 진보 후보가 번갈아가며 당선되기도 했다. 그만큼 후보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번 4·10 총선에서 대결을 펼칠 이들은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해당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고 있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대결을 펼칠 이들은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해당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고 있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대결을 펼칠 이들은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해당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고 있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다.

박진, 당 요청 받아 힘지서 '도전' 종로3선·강남을 탈환 등 경쟁력 ↑ '힘 있는 여당 후보' 내세워 승부수

서대문구는 민주당세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정두언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개인기로 내리 3선을 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당에선 후보가 경쟁력이 있으면 당색을 가리지 않고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종로에서 3선을 하고 강남을 민주당으로부터 탈환하는 등의 이력이 있어, 서울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평가받은 셈이다.

지난 5일 열린 박 의원의 서대문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대문갑 후보로 나설 이용호 의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진 의원은 자리에서 "서대문을 지역의 교통, 개발, 상권 등 해묵은 숙원을 해결하는 힘 있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대문구는 내부순환로 등으로 인해 일부 개발이 더딘 지역이 있다. 이때문에 박 의원 측은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서울시장-구청장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인 현재, 국회의원 역시 같은 당이어야 한다는 것이 선거 기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의원은 유진사가 지역 랜드마크 개발, 서부경전철의 신속한 추진 등 지

김영호, 모세혈관 유세 '3선 도전' 김승희 전 비서관 사직 이끌어 주목 경전철 건설 등 서울5대 공약 제시

역 개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다만 박 의원 측은 이 지역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만만하지 않은 상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김영호, 이번엔 3선 도전... '모세혈관' 유세

재선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서대문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후농(後農) 김상현 전 의원의 삼남이다. 김상현 전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서대문구에 터를 잡고 있었다보니, 고령층은 그에 대한

추억과 애정이 쌓여 있다고 한다.

김영호 의원은 4번의 도전 끝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만큼 지역에서 상당 기간 터를 닦아왔다. 오랜 시간 지역민들과 얼굴을 맞댄 덕인지, 20대 총선에서는 9%p, 21대 총선에서는 23%p 가량의 차이로 뺏지 획득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의전비서관의 딸 학교 폭력을 밝혀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1대 마지막 국감에서 야당이 뚜렷한 '한 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김 의원의 폭로는 김 전 비서관의 사직을 이끌어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한 김 의원은 최근 '서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경전철 건설, 철도 지하화 등의 공약을 살펴보면 서대문을 지역의 현안과도 연관이 깊은 공약들이었다. 또 민주당이 낸 '근로소득자 체육시설 세제혜택' 공약 발표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서대문을 지역 내 헬스장을 찾기도 했다.

최근 김 의원은 자전거로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이른바 '모세혈관' 유세다. 남은 기간 바닷 민심을 더 단단하게 다지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의원 측은 "네거티브 없이 정적으로 박 의원과 좋은 승부를 보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첨생법 개정... '오가노이드' 활용 재생치료제 개발 본격화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 확대 전망 환자에 대한 접근성·치료기회 높아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재생치료제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는 개인의 세포를 통해 만들어내는 맞춤형 치료제로,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난치병 환자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세계 첫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이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가 커졌다.

◆첨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상 확대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포·유전자치료제, 그리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의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및 그 밖의 난치질환에 대해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단, 고위험 및 중위험으로 분류되는 세포유전자치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내용 및 목적의 선행연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치료목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환자들이 해당 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시험 또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참여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치료계획심사를 허가 받은 경우에도 재생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환자에 대한 접근성 및 치료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는 성체줄기세포나 전분화능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인체 밖에서 만든 3차원 조직 모사체를 의미한다.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제작한 오가노이드는 인체 장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암을 포함하는 질병의 발생기전을 모사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체 치료제가 없

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첫 재생치료제 기대감

국내에서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에 대한 인체 임상 연구가 시작된 상태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세계 첫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 기대도 커졌다.

선발업체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부터 장 재생치료제 '아롬(ATOM)-C'에 대한 인체 임상연구를 시작했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인체에 투여된 첫 사례다. 이제까지 베체트 장염 환자 2명에 아롬-C 투여가 이루어졌다. 베체트 장염에 이어 올해

는 방사선 직장염 환자에 대한 투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롬-C는 지난해 첨생법에 의해 2건의 임상 연구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올해까지 10명의 환자에 아롬-C를 투여해 안전성 평가와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셀인셀즈 역시 지난해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피부재생치료제 'TRTP-101'에 대한 허가용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 TRTP-101은 인간 유래 줄기세포를 3차원 조직형상기술을 기반으로 오가노이드로 제작한 새로운 형태의 피부재생치료제다. 이를 피부가 함몰된 위축성 흉터에 이식하면 피부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다.

강스텝바이오텍은 인간 모낭을 그대로 재현한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기존 이식술을 대체하는 이식 기반 탈모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전, 3년간 누적적자 43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전망

흑자 전환에도 여전히 '부채 늪' 지난해 영업손실 4.6조 집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석유와 석탄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며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막대한 부채 규모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불붙고 있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연료 가격

하락에 힘입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 한 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조569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2021년 5조8465억원, 2022년 3조63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4조5691억원의 적자가 더해지며 3년간 누적적자는 43조원에 달한다. 다만 2022년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 가격 하락에 힘입어 1년 만에 영업손실 폭을 28조원가

량 줄였다.

지난해 매출액은 88조2051억원으로 전년(71조2579억원)보다 23.78%(16조9472억원) 늘었다. 영업비용은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감소 등으로 전년(103조9130억원)보다 10.72% 감소한 92조7742억원으로 기록됐다.

다만 흑자 전환 기조가 이어짐에도 누적 부채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기요

금을 3분기 연속 동결했다.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지난해 11월 대용량 고객 산업용 전기요금만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가격신호 기능을 회복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전 부채는 작년 말 기준 2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92조8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4조4200억원으로 전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년 대비 57% 늘었다.

4월 10일 예정된 총선 이후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차현정 기자 hyeon@